

#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의 문제

양 재 한 \*

<목 차>	
1. 글을 시작하면서	4. 미래의 도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2.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	4-1. 미래의 도서와 도서관
3.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개발 현단계	4-2. 사서의 역할
3-1. 대학도서관	5. 소장과 접근의 문제
3-2. 공공도서관	6. 글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 1. 글을 시작하면서

몇 주전 사서생활을 시작한지 1년 수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는 졸업생 3명이 찾아왔다. 이들중 한 명은 기업체 자료실에 근무하고, 2명은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초년병들이다. 대화내용 중에서 기업체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이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니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2명의 졸업생도 함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자료구입 결재를 맡을 때마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직장 상사의 얘기는 미래에는 인쇄로된 자료는 없어질텐데 지금 이런류의 자료구입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 다그치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다는 답변도 저렇다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의 분위기도 문헌정보학을 수 년씩이나 교육을 받은 사서들조차도 미래 도서관은 장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기술을 맹신하는 미래주의자들은 미래도서관은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책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the wall)'으로 변모하여 기존의 건물과 장서중심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의 어느 기관보다 척박한 도서관 환경,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수,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 조악한 대학도서관 장서의 양과 질, 그리고 훈련된 전문사서의 열세 등 많은 악조건 속에 있다.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이러한 난제들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연결한 도서관 전산화만 되면 일시에 해결될 것인가. 미래에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므로 단위도서관의 장서는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미래에 대하여 이러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문외한들뿐만 아니라 사서들조차도 많음은 어디에서 연유한 탓일까? 이는 정부, 언론, 컴퓨터업계, 전산전문가 등의 영향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며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다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행태에서도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도서관이 발전하려면 충실한 장서, 장서를 소장하거나 이용할 적절한 시설, 이들을 관리할 잘 훈련된 인력, 이들을 이용할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

이 요소들 중에서 우리 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사서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도서관 인적자원은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사서들의 의식세계는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서구지향적인 자세로 인하여 우리 도서관의 현단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피상성에 사로잡혀 혼란 속을 헤매고 있다.

최성진은 문헌정보학은 학문성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학문이므로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한국의 도서관봉사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여야 하며, 한국의 도서관 봉사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은 '지적 기반'의 부족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지적기반을 제공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이라고 하고 있다.<sup>1)</sup>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미래도서관에 대한 지적기반은 어디에서 전수되었을까? 많은 부분은 문헌정보학을 강의하는 강단에서 흘러나왔을 것이다. 미래도서관에 대한 문헌정보학 강단의 담론은 미래도서관을 설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기본자료와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논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

미래도서관에 대한 설명으로는 인쇄매체의 종말이 온다는 것에서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건물로서의 도서관이 사라지고 컴퓨터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더 이상 단위도서관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역간, 국가간, 범세계

1)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995. pp. 7-13.

적 도서관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the wall),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sup>2)</sup>

이런류의 미래도서관이 현실화되면 지금과 같은 도서관 장서, 직원, 건물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담론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헌정보학 분야 입문 교과서 2종, 국내 번역되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번역서 1종, 한국문헌정보학회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최근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미래도서관과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로 한다.<sup>3)</sup>

문헌정보학 분야의 입문 교과서 중의 하나인 단행본에서는 F.W. Lancaster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도서관은 그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인 기능성은 마이크로폼 축적과 컴퓨터응용과 같은 기술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점증하는 다양한 자료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촉진되는 네트워크 활동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유용성과 비용-효과를 개선하게 될 것이며, 방대한 국가적 도서관자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서관은 종이에 인쇄한 자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심지어는 축출될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계가독형 자료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의 직접방문의 기회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도서관들은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정보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 이용자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도서관들은 온라인 지적공동체가 될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개별도서관에 본문 또는 기타 형식으로 된 정보자료는 물론 접근을 허용하게 되므로,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간의 차이점은 불분명해질 것이다.

---

2)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전국사서협회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1995. 12. p. 6.

3)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이들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가장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이 분야의 입문과정에 있는 교과서류일 것이다. 입문과정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리라고 생각되는 교과서류 2종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국내번역되어 인용되어지는 빈도가 높은 번역서 1종,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문헌정보학회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최근 발표한 미래도서관 관련 글들에서 한국의 문헌정보학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인용되는 자료들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출현으로 데이터 뱅크에로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해답을 제공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감소시킬 수 있다.(단행본 A, pp. 91-92)

요약해 보면, 미래에는 자료처리과정이 자동화되고, 종이로 인쇄된 자료와 지역단위 도서관은 사라질 지도 모르며, 전자식 접근방법으로 전환되고, 도서관서비스가 도서관을 우회하여 가정으로 배달되고, 온라인 지적공동체는 새로운 시설로 변환되는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입문 교과서에서는 미래사회에 종이로 출판한 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도서를 구입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주로 일반 개인이 사는 도서, 전문직 및 사업분야에서 사는 도서, 교육분야에서 사는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개인이 사는 도서는 일반대중용 도서로 경제적인 문제, 휴대의 편리성,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향후 종이 형태로 오래도록 이용될 것이며, 전문직이나 사업분야에서 이용하는 도서는 주로 참고용 독서자료이므로 연구자들이 문헌의 형태보다는 정보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용이 편리할 것이고, 이에 비하여 교육분야에 필요한 교과서류는 인쇄형태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어 질 것이다.(단행본 B, pp. 517-520.)

미래도서관에 대해서도 위의 입문 교과서에서는 F.W. Lancaster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사회는 전자문헌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쇄자료가 줄어들고, 사무실과 가정에 터미널이 보급되고, 연구자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며, 시설로서 도서관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나 산업체 부설도서관의 기능 가운데 일부는 전자식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학생들의 과제처리, 인기작가의 소설, 설계도면,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빌리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전자식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시설로서 도서관이 존재하며 전자식 기술은 현재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이용자들이 터미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더라도 도서관의 필요가 사라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단행본 B, pp. 520-536)

우리 나라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번역서로는 Kenneth E. Dowlin이 쓴 'The Electronic Library'가 국내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있다. 이 번역서에서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책을 두는 장소이며, 사서는 책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사서에게는 책과의 연결 혹은 책과의 관계가 하나의 자산이었다. 책이 갖는 낭만적인 분위기 덕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의 축적과 전달 수단이 책 이외에도 개발됨에 따라, 우리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회에 내보일 근거가 약하게 되고 책과의 관계라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점이 되었다. 다른 미디어의 이용증대와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며, ... 전자시대에서는 정보에 대한 조직화된 액세스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된다. ... 만약 책이 정보의 입수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동일 목적을 위한 다른 수단들도 검토하고, 이들 수단을 조직화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서의 역할은 정보의 액세스를 늘리는 일이다.(번역서 A, pp. xi - xiii)

Dowlin은 미래도서관의 사서의 역할은 정보의 액세스가 주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장서소장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중의 하나인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간행된 최근 논문 중에서 미래도서관과 관련된 논제들에서 연구자들의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인쇄매체로 된 자료가 한 권이 없어도, 오늘날의 대학도서관과 같은 거대한 건물과 공간이 없어도 학술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논문 A, pp. 4-5)

첫째, 도서관에서 책이 사라지고 있다. 둘째, 이용자가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셋째,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이든 이용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적으로 말해 현재 종래의 도서관이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다다랐고 그 새로운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다.(논문 B, p. 115)

금번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된 글들 중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인쇄매체는 점차 디지털형태의 뉴미디어로 대체되고 있다. 즉 정보는 이제 디지털형태로 만들어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형태의 데이터는 인쇄물을 생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지만, 점차 CD-ROM, 비디오디스크, 그리고 자기테이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인쇄매체가 오늘날의 도서관을 탄생시켰듯이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미래의 도서관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 종이 없는 사회에서 도서관 대부분의 업무는 전산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종이는 여전히 편의를 위해 최종적인 출력물로서 사용될 것이다.(논문 C, p. 68-69)

책의 영원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책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카메라가 발명된 후 회화 (painting)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면서 도서관의 전자화는 전통적 도서관을 보완(reinforcement)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논문 E, p. 135)

지금까지 살펴본 글들에서 입문교과서 한 종과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한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책의 시대는 끝이 나고 기존의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 형태로 대체되어 장서의 소장 개념은 사라지고 접근의 개념만 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미래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미래도서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단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단계를 바르게 이해하면 미래도서관에 대해서 올바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도서관에서 소장과 접근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단계 부터 알아보자.

### 3. 우리 나라 도서관의 장서개발 현단계

#### 3-1. 대학도서관

금년 3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동일 교수가 공개구직을 선언하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조동일 교수는 공개구직을 선언하면서 연간도서구입비 1천만원, 1만여 권의 개인장서를 보관하기 위한 30평 정도의 연구실, 1주일에 90분 짜리 공개강의 두 번 만을 할 수 있도록 단과대나 학과, 연구소 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교수로 발령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조교수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자료로는 연구에 필요한 장서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교수 자신이 연간 5백만원 정도를 책 구입하는데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이 충실해지기를 기다려 연구를 하려면 조교수 평생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sup>4)</sup>

서울대학교가 어떤 대학인가. 외형적으로 한국 최대 최고의 대학에다 도서관장서수에 있어서도 170만 권이 넘지 않는가. 이 170만 권의 의미는 연구에 부적합한 집서란 말인가. 연구에 부족한 도서는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는 없었던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안다면 170만 권의 장서수의 의미를 알 것이며, 서구에서 일반화된

4) 문화일보, 1996.3.29(금요일), p. 20.

상호대차 제도가 우리의 허약한 실물장서 상황에서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분석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김정근은 그의 책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의 현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89년 말 현재 장서 52만 권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서 52만 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의미를 똑똑히 댈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런 식의 장서라면 52만 권이면 무엇하며 또 152만 권이면 무엇하겠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대학도서관의 서가인가? 이곳은 폐품수집장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이 곳에는 무명의 저자, 편자, 역자, 무명의 작가, 시인, 수필가가 이처럼 판을 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들은 많은 경우 다섯권, 열권 또는 수십 권씩의 복본의 형태로 서가를 점유하고 있는가? 왜 연속간행물 수집은 또한 이러한가? 왜 이처럼 결호가 투성으로 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사람들은 이 대학의 장서로는 요즘 유행을 타고 있는 공산권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제3세계 연구도 어렵다고 하는가? 노동연구, 여성연구도 곤란하다고 하는가? 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 연구조차 어렵다고 하는가?<sup>5)</sup>

우리 나라 최대 최고대학인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소장과 접근의 우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에 전자도서관이 되든 디지털도서관이 되든 주고 받을만한 자관 자료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는 충실한 실물장서 구축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3-2.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분야는 1980-90년대에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부분이 더러 있다. 도서관 숫자의 증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 도서관행정 담당부서의 문화체육부 이관과 담당부서 설치, 도서관업무의 전산화 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동일한 문제로 30년 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주의·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주고객은 학생과 가정주부들이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이

5)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p. 77.

용하고 있고, 주부들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수강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도서관 본래의 역할이 아니지 않는가.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켜주는 데 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을까. 이에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의 문제, 행정직 관장의 문제, 사서들 자신의 문제 등이 있겠지만 자료의 문제가 가장 큰 기본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단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이 지역사회의 이용자와 미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 개발의 기초단계가 아니라, '사주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구입에 대한 결정은 전문사서로서 법에 의해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규정받은 사서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직 관리자의 한마디 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의 서가는 개발된 장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봐주고, 사주고, 얻어오고 해서 채워진 잡동사니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sup>6)</sup>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구성을 보면 그나마 적은 장서 중에서 대부분 70-80%가 전집이라는 데 더더욱 문제가 있다. 완전히 전집시장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똑같은 전집이 몇 질씩이나 되는 도서관이 허다하다. 실제 이용자들의 입에서도 도서관에 가도 볼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sup>7)</sup>

백두시의 4개 공공도서관의 장서수준은 양의 부족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기증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질적 구성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구입비의 부족으로 자료기준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장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개관을 연기하는 공공도서관도 있었다. ... 이제는 한가로이 흥미위주의 인위적인 베스트셀러물 몇 권 읽는 것으로 독서량과 문화수준을 동일하게 측정하던 시대는 지났다.<sup>8)</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사주기에 의한 무의도적인 장서개발에 따른 전집류의 과다보유, 도서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기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베스트 셀러 위주의 장서구성, 비전문직 자들의 장서구성에의 개입 등으로 총체적 난관에

---

6) 김정근, 장덕현,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27집(1994), p. 52.

7)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자료집(1): 공공도서관, (서울: 신문학사, 1991), p. 39.

8) 김순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서업무의 현단계: 백두시 4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p. 67, 74.



빠져있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의 현단계가 이러하다면 현단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곧바로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으로 진입하자는 것인가. 책을 읽는 습관이 종이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자료를 전자화해서 읽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서양문헌에 나와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는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중요하다. 종이매체는 지식습득을 위한 지속적 독서를 위해서는 최상의 수단이다. ... 컴퓨터는 데이터나 적은 팻킷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 아직 독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두 세 페리그래프 이상되는 길이의 텍스트를 읽는 데는 종이 매체가 단연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sup>9)</sup>

## 4. 미래의 도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 4-1. 미래의 도서와 도서관

오늘날 도서관자료의 대부분은 인쇄매체 중심인 단행본과 정기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매체들은 보존을 위하여 서고공간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와 재생산의 어려움, 배포비용의 문제, 갱신(update)의 어려움,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데 어려운 문제, 쉽게 손상되는 문제, 운반의 어려움, 자료 성격이 동적이지 못하고 정적인 문제, 음성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동화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독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는 문제, 독자의 이해정도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문제<sup>10)</sup> 등의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전자매체인 자기 디스크나 광 디스크와 같은 매체로 기록물을 대체하는 현상과 아울러 컴퓨터와 통신망을 결합한 전자도서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전되어 기술이 발전된다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인쇄매체는 사라질 것인가. 전자매체에 의해서 대체될 것인가. 미래학자들 중에는 인쇄매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측도 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정보자료의 원문이 CD-ROM이나 광디스크와 같은 뉴미디어

9)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 (Chicago: ALA, 1995), pp. 13-18.

10) Philip G. Baker, 안현수 역, "전자책과 미래의 도서관", 도서관, 제48권 제3호(1993, 5.6), p. 19.

에 수록되면 기존의 인쇄매체보다는 원문 제공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원문은 절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문은 대출하지 않으므로 항상 가독할 수 있고, 원문 전부를 요청하기 전에 훑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쇄매체는 전자매체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렇게 변화할까. 인류는 인쇄매체로 독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인쇄매체는 가지고 다니기 쉬운 반면에 전자매체는 휴대가 불편하고, 인류가 지닌 고도의 사고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인쇄매체 보다 우수한 기록매체를 인류는 아직 개발한 적이 없다.<sup>11)</sup>

미래에 인쇄매체가 사라질 것이라면,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 도서, 잡지, 신문 등에 대한 출판량, 판매량, 도서관의 대출량 등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Crawford와 Gorman은 오히려 이들의 수치는 증가되고 있어 인쇄매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서관판매량이 1991년보다 1992년의 9달 동안 약 16%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성장률이다.

아동과 청소년 도서시장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1991년 4월과 1992년 3월 사이에 8억2천2백만 권의 성인도서가 팔렸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이며, 모든 미국 가정의 2/3가 한 권의 책을 구입한 수치이다.

전체 인쇄/출판 산업은 미국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다.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잡지와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출판은 530억 달러 이상이다. 잡지와 신문의 대부분의 수입은 구독료보다는 광고로부터 나온다.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률이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1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sup>12)</sup>

인쇄매체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또하나의 예는 전자매체로 독서하는 데는 빛(light), 해상도(resolution), 독서속도(speed of reading)의 문제가 있다. 전자매체로 독서하면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눈이 쉽게 피로하여 장시간 독서할 수가 없게 되며, 빛과 해상도의 문제, 한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 양이 인쇄매체의 1/2에서 1/3정도만 볼 수 있는 문제 등으로 독서속도가 인쇄매체에 비하여 떨어진다.

또 하나의 예는 경제적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참고업무와 관련된 색인과 초록류, 짧은 논문과 소설류는 전자매체쪽이 비용이 절약된다.<sup>13)</sup> 따라서 모든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로 변화되기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참고업무와 관련된 색인과 초록류 등 서지도구와 짧은 논

11) Crawford and Gorman, op. cit., p. 16.

12) Loc. cit.

13) Ibid., pp. 19-34.

문과 소설류 등을 제외하고는 인쇄매체가 계속 유효하게 사용될 것이다.

다음은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래의 도서관은 컴퓨터와 통신망 연결에 의한 전자도서관만 존재할 것인가. 인쇄매체 중심인 현재의 장서들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은 ‘한때 도서관의 서가에는 책들이 꽂혀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는 우리보다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이 빠른 미국의 도서관 장서개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연구도서관협의회에서 간행한 ‘ARL Statistics: 1994-95’에서 매년 평가하는 대학도서관 순위결정 항목으로는 장서수, 정기간행물수, 연간증가자료량, 자료구입예산, 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서관련 통계가 일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요 대학도서관의 장서수는 하버드대학 1,300여만권, 예일대학 950여만권, 일리노이 대학 860여만권이고, 이들 대학의 한해 동안 장서 증가량은 각각 27만여권, 13만여권, 20만여권으로 여전히 종이로 된 자료 확충에 혈안이 되어 있다.<sup>14)</sup>

이와함께 위 통계에서는 대학도서관들이 온라인 목록과 CD-ROM과 같은 매체를 갖추게 되어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도서구입 가격과 잡지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용자요구에 맞는 자료확보가 과거 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상호대차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1986년보다 1995년말에는 상호대차 이용율이 104%나 증가되고 있다.<sup>15)</sup>

위의 예에서 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장서를 확보하고 있고, 전자매체를 통한 접근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요구 만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어, 소장중심으로한 접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이 앞서 있는 미국의 상황이 이러하고, 우리나라 장서개발의 현 단계를 안다면 소장중과 접근의 우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미래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하여야 할까. 소장중과 접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접근에 의한 정보이용은 소수 계층에서 이용할 것이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미래에도 지금과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인쇄매체로 된 책을 계속 읽을 것이다.

모르티머 에들러(Mortimer Adler)는 ‘마음의 네가지 자산’으로 정보, 지식, 이해, 지혜를

14)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1994-95. (Washington, DC : The Association, 1996), pp. 55-72.

15) Ibid., pp. 9-13.

들고 있다. 그는 이 네가지 가운데 정보는 값이 가장 떨어지며 지혜쪽으로 갈수록 보다 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보는 전자기술을 이용한 처리나 전달에 알맞고, 지식은 의미로 바뀐 정보라고 한다. 그것은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러한 전달에 있어 바람직한 매체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 이해는 어떤 세계관과 개인적 관점이 반영된 지식을 말하며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혜는 이해가 완전하게 생산적으로 된 상태를 말하며 역시 인간정신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한다.<sup>16)</sup>

이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정보의 홍수 속을 멋있게 수영은 할 수 있으나도 지식, 이해, 지혜를 구하는데는 부적절한 매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쇄매체의 몫이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의 몫이다. 우리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인 기록류에 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인류가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고 봉사하는 시설이 미래의 도서관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 4-2. 사서의 역할

사서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 정리, 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 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17)</sup>

미래사회의 사서는 현재 사서들이 수행하고 있는 문헌의 수집, 정리, 보존, 대출과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하에서 이들 업무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사서직 자체가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최석두<sup>18)</sup>, 김성혁<sup>19)</sup>, 서은경<sup>20)</sup>, 구분영<sup>21)</sup>의 연구 등의 연구에서 현존하는 소장 중심의 도서관들이 접근 중심의 전자도서관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사서들의 역할도 정보전문가 내지는 정보공학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김태승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6) Mortimer Adler, A Guide to learning. (New York, 1986), pp. 110-134,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Ibid, p. 4에서 재인용.

17)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184.

18) 최석두,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제34권 5호(1993, 9.10), pp. 29-35.

19) 김성혁, 앞의 글, pp. 70-85.

20) 서은경,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새로운 역할”, 국회도서관보, 제32권 4호(1995,6), pp. 5-16.

21) 구분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 (1996,6), pp. 3-50.

우리의 정보문화 현장인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사회속의 조직체이다. 인간의 모든 행태가 수학적·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우리 학문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본질이 아니다. 정보학이 정보의 속성, 정보의 유통, 정보처리, 정보의 서비스를 주된 연구영역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전문가시스템이나 추론엔진과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능주의 방법이 모든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달아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 최근 숭미주의적 학문도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신실증주의에 지배당하는 수난은 더이상 사양한다. 문헌정보학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인 한은!<sup>22)</sup>

앞의 글은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사서의 역할을 정보전문가 혹은 정보공학자로 바꾸려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첫째, 사서들의 일이 접근을 통한 정보제공 업무 외에도 많은 다른 업무가 도서관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 화이트칼라 계층은 대부분 정보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sup>23)</sup>

그렇다고 오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미래의 사서는 접근의 문제를 무시한 채 실물장서만 고집해서도 아니된다. 미래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할은 튼튼한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하여 접근에 의해 지원하는 소장과 접근이 균형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서의 역할이 미래에도 이용자와 자료를 중재해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미래주의자들은 미래에는 이용자가 터미널을 통하여 자료에 직접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이므로, 이용자와 자료를 중재해 주는 사서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말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를 동일시하는 주장으로, 사서의 역할을 평가절하 하는 사고이다.

아마 사서의 도움없이 접근이 가능한 이용자는 소수 계층일 것이며, 보통의 이용자들은 사서의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기술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산업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오히려 사서의 역할은 증대되어 더욱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22) 김태승, “학문의 신실증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제34권 제5호(1993, 9.10), p. 2.

23) Crawford and Gorman, op. cit., pp. 105-106.

## 5. 소장과 접근의 문제

인류가 살아온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세대이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다. 수세대 전 인류가 많이 사용하였던 문명의 이기 중에서 그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예를 생활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 중에서, 전화와 편지 쓰기를 살펴보자. 전화가 나타나기 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지 쓰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편지 쓰기는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고 부터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여행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자. 비행기라는 수송수단이 일반화되면서부터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컴퓨터와 통신망의 결합으로 생겨난 전자도서관이 기존의 소장 중심의 종이도서관들을 대체하는 것에도 나타날 것인가.

미래사회에 완벽한 통신망을 갖추게 되면 지금의 종이도서관은 사라지고 지식을 관리하는 전자도서관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수많은 워크스테이션과 통신망만 있으면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을 때 이 사이를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인터넷’이란 것이 나타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즉, 컴퓨터에다 인터넷만 연결시키면 모든 찾고자 하는 정보가 해결될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정보의 유통 부문에만 집착, 정작 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D/B) 개발이나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는 턱없이 미흡하다. ... 정보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유통-평가-생산이라는 순환도를 그린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보의 유통에만 집중된 기형적 구조이다. ... 정부가 201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45조원을 투입하면서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sup>24)</sup>

더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에게 인터넷을’이라는 운동이 지닌 문제점이다. 우선 인터넷에 무수히 깔려 있고,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의 음란물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이트들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의 사이트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문화가 ‘생짜’로 제공될 경우,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

24)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 NEWS+, 제33호(1996. 5. 9), pp. 27-28.

이의 교육에 끼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훤히하다. ... CATV, 위성방송 등의 등장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뉴미디어 전쟁속에 신문사들이 설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생사를 걸 수밖에 없다.<sup>25)</sup>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할일 없이 들어간 PC통신망, 인터넷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다. 사람들은 정리된 도서관, 훈련된 사서를 마다하고 잡동사니 정보로 가득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멋있게 헤매려 한다. 나는 학생들이 인터넷의 걸멋에만 들떠 정작 대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교양인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근심스럽다. 긴 호흡의 책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기껏해야 삼십 여줄 안팎인 짧은글(주로 통신망에서 글쓰기 문화)에만 맛을 들이는 것은 대학생 최악의 모습이다.<sup>26)</sup>

위의 세가지 예는 정보화의 거품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글들이다. 처음의 글은 정보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이 되어야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모습은 정보 생산의 문제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유통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음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 오랫동안 실물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오직 접근에만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기형적인 모습에 우려를 표시하는 말이다.

두 번째 글은 신문사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뒤에는 상업성의 음모도 감추어져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 쉬락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의 창의력을 북돋우고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 놀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인터넷 추방을 선언했다고 한다.<sup>27)</sup> 세 번째 글은 우리의 대학생들이 제대로 쓰고, 읽는 훈련을 위해서는 접근의 방식보다는 실물장서를 이용하는 기초부터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금년 7월 2일 교육부의 새직제를 의결하였다. 새직제 중에는 교육정보관리국을 신설하여 그 산하에 교육정보기획과, 교육매체설비과, 정보자료담당관, 행정전산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직제개편의 목적 중에는 '정보관리 기능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편을 단행하였다고 한다.<sup>28)</sup>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학습사회에 대한 계획이나 교육부내의 새직제에 이의

25) "대학정론-우려되는 정보화 거품", 교수신문, 1996. 6. 17.

26) 조환규, "클리포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책과의 대화" 부대신문, 1996. 6. 10. p. 5.

27) "대학정론-우려되는 정보화 거품", 앞의 글.

28) "교육부 새직제 확정", 한국교육신문, 1996. 7. 3, p. 1.

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변화하는 사회에 교육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위의 계획들이 얼마나 건너뛰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학습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EDUNET이 완성되면 접근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피상성에 젖어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곧바로 전자도서관 형태로 바뀌 종이매체를 대체한 전자도서관을 만들자는 발상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싶다.

과연, 미래에는 실물장서가 필요 없는 전자적 접근만 있는 도서관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기술을 맹신하는 자들에 의해 그려낸 하나의 환상이라고 크로포드와 고어먼은 말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특징으로 최신의 것에는 과도한 환상에 빠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병적인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정분야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20년내에 전자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 과학단체로부터 온 보고서를 기술광신주의자가 읽고, 모든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20년내에 전자화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단계로 건너뛰기를 하고, 이 확신은 인쇄자료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건너뛰기를 하게 된다.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이러한 주장을 읽은 또 다른 기술광신주의자들은 모든 도서관이 20년이 아니고 수년 내에 전자화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건너뛰기를 하게 된다.’<sup>29)</sup>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말하는 ‘종이 없는 도서관’ ‘책없는 도서관’은 기술광신주의자들이 그려낸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컴퓨터보다는 종이로 된 인쇄물들이 먼저 나왔다. 통신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은 주로 근래에 간행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과거의 자료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간행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한다는 것이 현재에도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작권의 문제이다. 현재 국제협약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신망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저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sup>30)</sup>

셋째, 비용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간행되어 나온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책의 한쪽을 스캐너로 입력하는데 50센트 내지 3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책한 권을 디지털화 하는데는 최소 100달러 이상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소장을 통한 자료 대출의 경우와 접근을 통한 정보이용과의 경제성에 대하여 비교해 보자. 1991-92년

29) Crawford and Gorman, op. cit., p. 51-52.

30) Clifford Stoll, op. cit., pp. 248-253.



동안 미국의 공공도서관 대출한 건당 평균 비용이 1.87달러가 소요되었고, 대출량은 16억 권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을 디지털화한 시스템에서 프린트로 출력하여 이용할 경우 1건당 10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이 정도의 대출을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면 160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액수는 미국 공공도서관 전체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기존의 대출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sup>31)</sup>

넷째, 전자매체는 항구적인 기록보관용이 아니다. 전자매체의 발달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매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과거 천공카드에 의한 기록류들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로피 디스크와 CD-ROM이 5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사용될 것인가. 지금 전자매체속에 기록되고 있는 컴퓨터 언어와 구조들이 몇 년을 지속하다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 이런 매체들이 바뀔 때마다 모든 자료들을 새로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sup>32)</sup>

다섯째, 현존의 도서관은 인류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에는 보존될 것이다. 또한 통신망을 통해서도 진지한 연구가 불가능하므로 사고력을 지닌 인류가 독서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소장중심의 도서관은 존재할 것이다.<sup>33)</sup>

여섯째,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제공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도서관은 다기능 도서관이다. 자료대출, 스토리-텔링(story-telling)봉사, 각종 프로그램 봉사, 지역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노인, 어린이에게 봉사하는 다기능 도서관이다.<sup>34)</sup>

그러면, 접근에 의한 미래도서관은 언급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개개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것보다 전자매체에 의해서 접근을 통한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가 유익한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전자서지D/B는 지역간이나 국가간에 도서관 상호대차, 협동수서, 보존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접근 도구이다. 또한 정부문서나 기술보고서등과 같은 특정화된 짧은 자료에 대한 D/B와 지도자료를 포함한 화상정보는 모든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sup>35)</sup>

미래에는 현재와 같이 소장 중심의 도서관만으로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소장을 포기하고 접근의 형태로만 나아갈 경우에는 더 이상 도서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서라면, 강력한 실물장서의 바

31) Crawford and Gorman, op. cit., pp. 135-139.

32) Clifford Stoll, op. cit., pp. 258-261.

33) Ibid. pp. 261-265.

34) Crawford and Gorman, op. cit., p. 133.

35) Ibid., pp. 150-151.

탕 위에 도서관 자원 공유의 차원에서 특정분야의 자료에 대해서 접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장과 접근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도서관을 예측할 것이다.

크로포드와 고어먼은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과 접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거의 모든 도서관들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긴요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인쇄물과 다른 매체로 구성된 튼튼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튼튼한 실물장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성공적인 미래도서관은 원격자원에 대한 접근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실수요를 충족시키며,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수용하는 실물장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실물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접근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 혜택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서들과 도서관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의 자료와 자원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의 획일적인 해결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모든 도서관 자원은 전자형태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미래는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시대일 것이다.<sup>36)</sup>

## 6. 글을 마치면서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학문연구 업적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되어 있지 않다.

조동일은 우리학문이 세계학문이 되려면 창조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학계의 학풍을 4가지로 나누고 있다. 남의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는 ‘수입학’, 남의 학문 가져와서 나무라는 ‘시비학’,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막아내는 ‘자립학’, 우리학문으로 남의 학문 넘어서는 ‘창조학’으로 구분하고 있다.<sup>37)</sup>

문헌정보학은 현장성을 바탕으로 생성된 학문이다. 학문을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도서관이고 이론은 첨단외국 것이라면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을 넘어서는 ‘창조학’은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수입학과 시비학을 벗어나기도 힘든 일이다.

흔히들 우리는 세계지도를 그릴 때 자국을 중심으로 그리지 않는가. 이는 자국중심의

36) Crawford and Gorman, op. cit., 181.

37) 조동일, “국학 이론의 발전과 세계학문”, 21세기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새 국학의 설계와 국학중흥 운동을 위한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1996. 11. 1-2(안동대학교 문화회관), p. 68.

국수주의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나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학문적 성과를 위해 연구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과제와 씨름하는가. 우리는 지금 서구의 이론과 방법을 수입하여 우리 자료에 적용하는데 익숙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료를 통하여 주체적으로 개척한 이론과 방법을 국제학계에 수출하는데 힘을 기울이는가. 혹시 서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서둘러 읽고 끌어들이며 남먼저 써먹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도 우리학문을 하자는 자성적 운동이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공동작업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1996년 한해동안 도서관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무엇이었는가. 첨단 도서관에 관한 것이었는가. 아마 공공도서관 간판 내리기를 획책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도서관인들의 숨막히는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모두 힘을 합해 도서관간판 내리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데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광기어린 열풍과 피상성이 우리나라 도서관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계는 어떤가.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장은 혼란속을 헤매고 있고, 원시 그대로인데 서구학문을 모방하여 남먼저 써먹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유행하는 타 학문을 모방하는 겉멋만을 내고 있다. 급기야는 전산학 분야에서 소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학이라고 말하는 분야까지 잠식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해야할 우리나라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크로포드와 고어먼, 스티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인류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간적인 봉사가 도서관이 존재하는 기본적 이유임을 명심하라.

데이터와 정보가 아닌 지식과 이해가 도서관의 주요 관심사임을 인식하라.

도서관직의 주요한 윤리적 관심사인 자료와 정보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봉사, 협동, 지적 자유를 수호하라.

도서관과 사서가 수세기 동안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존중해 온 방법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중대한 사명을 수용하라.<sup>38)</sup>

문헌정보학과가 너무 많은 수요를 만족시켜 주려고 한다면 문헌정보학과의 독자성을 잃게 될 것이다. 학과가 생존하려고 한다면 유행을 쫓는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전문직의 본질

38) Crawford and Gorman, op. cit., 182.

과 그들의 공헌에 대한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sup>39)</sup>

성공적인 미래도서관을 위하여는 유행과 겉모습만 따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정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거기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만 우리나라 도서관은 희망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타 학문을 모방하다가 우리 학문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와 학계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전은 이 땅위에 사서직이 독립된 직업군으로 튼튼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다.

김정근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미래도서관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년도 넘는 현대적 도서관직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도서관현장을 완성하였다. 도서관직과 그 관련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규모가 이십만명선이다. 그들은 개체 도서관별로, 다시 서로 연계의 형태로 화려하고 거대한 실물장서와 시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정보기술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사서직의 고용규모는 오천명선이다. 실물장서와 시설도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여기에 정보기술의 광풍은 직업자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바람 속에서 도서관직 자체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우선 우리 도서관직업군의 규모를 지금의 열 배가되는 오만명 정도로 키울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 또한 규모도 커져야 한다. 무엇보다 단위도서관의 실물장서의 규모가 크고 내용이 좋아져야 한다. 거기서 직업적 힘이 생겨난다.<sup>40)</sup>

김정근은 현재의 오천명 규모의 사서직원수를 지금의 10배가되는 오만명 정도로 키울 수 있는 비전을 가져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관련기관의 수가 많아져야 하고, 규모도 커져야 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실물장서의 내용과 프로그램도 달라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도서관계의 희망찬 도전이다.

---

39) Margaret F. Stieg, Change and Challenge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Chicago: ALA, 1992), pp. 174-175.

40) 김정근, "실물장서, 아직도 중요한가?", 동아대학교 개교50주년 해외석학 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회, 1996. 11. 25(동아대학교 교수회관 동시통역실), p. 50.